

4 강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위력 주일 오후 2 시(EM 공동)

요한 1 서 5:1-12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는 중심주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절멸시키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백성으로 재활복구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매력에 끌리는 사랑, 이스라엘의 장점과 탁월함에 홀려서 이뤄지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려는 의지 자체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소멸시키지 않고 갱신시켜 의인으로 만드시는 재활복구적 사랑 자체이시다(1 장).

둘째,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긴다. "세상은 안목정욕, 육신정욕, 이생자랑으로 구성된 자기생명적 존재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줄 것같은 풍요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이나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찰나적이며 덧없는 거품이다. 교회가 대면하는 또 하나의 세력은 정통교회에서 갈라져 간 이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 통한 사랑, 성육신 사랑을 배척하는 자요 몸과 재물을 통한 하나님사랑 구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다(2 장).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죽음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내어주심의 사랑이요 자기소진적 사랑이요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키는 사랑이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표현, 물질적 표현으로 이뤄진다는 말이다. 하나님 사랑은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물질적

표현, 육체적 실천이 동반된 사랑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을 본받도록 부름을 받았다(3 장).

넷째, 이런 하나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처럼 자기소진적 사랑을 통해 형제자매사랑에 참여할 때 그곳에 바로 영생이 이뤄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된다. 하나님사랑은 서로에게 자기소진적 사랑을 베푸는 고도로 성숙한 인류공동체 안에서 체현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의 핵심은 하나님계명을 실천하고 준수하는 것이며 준수되어야 할 그 하나님계명은 하나님처럼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원천에서 이웃사랑, 형제자매사랑의 생수를 펌프질하라는 것이다(4 장).

오늘 본문 요한 1 서 5:1-12 은 이 중심주제를 다시 요약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1-5 절)

1 절은 요한복음 1:12 을 되웁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 즉 거듭 난 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셨던 부왕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마 16;17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마 11:25-27). 독생자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독생자를 믿으며 사랑합니다. 2 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계명준수를 통해 이뤄집니다. 3 절은 하나님 계명준수가 무거운 과업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사랑 때문에 지키는 계명준수는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음송하고 암송하는 자들입니다(시 1:2). 하나님의 계명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시 19:10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우리 영혼이 생명력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계명은 우리의 모든 자산을 거룩하게 낭비하고

소진시켜 형제자매 즉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된 사람들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로마서 10 장 13-15 절). 하나님 사랑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요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여야 할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4 절은 결정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으로 거듭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4:4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하나님 독생자는 친히 십자가 죽음공포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습니다(요 16:33). 세상은 죽음으로 위협하거나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죽음의 위협과 하나님처럼 영생을 주겠다는 유혹이 세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부할 때 죽음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 사이비이긴 하지만 거의 신적 생명을 누릴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첫째, 세상이 주는 두려움, 공포, 박해와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형제자매 사랑에 매진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세상이 주는 온갖 유사 영생의 거짓을 간파하고 세상일이란 안목정욕, 육신정욕, 이생재부 자랑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즉 세상의 덧없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사랑에 감복되어 불멸가치인 형제자매 사랑, 이웃 사랑에 투신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형제자매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체현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정욕을 위한 돈낭비를 이깁니다. 시간낭비, 재능낭비를 극복합니다. 덧없는 욕망이나 쾌락을 위해 생명원기를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과 원기가 가득 찬 하나님과의 친교가 세상친교나 쾌락추구보다 더 역동적이고 몰입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형제자매사랑 실천에 뛰어든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이 세상의 열등하고 허무한 욕망을 부추기지 않고 하나님 닮은 고상성품, 우리의 성화된 새 자아를 추동해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이뤄지게 합니다.

5 절은 4 절의 진리를 다시 설의법(設疑法)(어떤 명제를 강조하기 위해 구사하는 수사적 질문)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6 절은 예수님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물, 피, 성령.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6-12 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6-7 절). 물, 피, 성령은 동일한 본체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8 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로마 창병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십자가 고난(요 19:34)이 예수님의 육신입고 오심의 절정목적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물과 피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마지막은 물과 피를 쏟아내는 날이 됩니다. 우리 생애 마지막은 육신생명 연장하려고 아등바등하는 생물학적 목숨연장이 아니라 물과 피를 쏟아내는 자기소진의 절정입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보좌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보내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요 14:26; 15:26; 16:7).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죽음이 이뤄진 그 자리에 성령의 포도주가 부어질 것을 암시한 사건입니다. 물과 피는 성령을 가리키는 성례전적인 메타포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선사된 성령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인을 보낸 셈입니다(9 절). 신명기 19 장 15 절의 복수증인법에 하나님의 3 중 증언은 참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성령의 삼중적인 증거, 즉 내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안에 영생의 작동을 경험합니다.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이 영생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11 절). 그래서 아들을 믿고 아들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사는 자만이 세상의 가짜영생, 죽음위협과 협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10 절).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12 절). 영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식탁에 참여하는 내세의 삶을 가리킵니다(마 8:11).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영생을 누리는 대표적인 언약백성입니다. 그들은 "살아 있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참뜻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막 12:27)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의 영생은 "형제자매 사랑의 사귄, 특히 식탁공동체 사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눅 16 장 아브라함의 품안에 누운 거지 나사로의 영생).

전체 결론

교회(敎會)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거룩하고 복된 사귄(交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복된 사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 사귄이나 조직체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전체와 구분되는, 그러나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잠정적으로 분리된," 어떤 부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고, 교회는 이스라엘의 거룩구원 사명을 상속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패역을 참지 않으시고 자신의 존전으로부터 내치시지만, 땅끝이나 스올에 가서 자리를 펴고 사는 징벌받은 죄인을 자신의 품안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참으로 역설적이고 모순포용적인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사귄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귀는 상호견인, 상호개방, 상호침투, 서로사랑에 묶인 사회적인 하나님입니다. 단독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귀고 교제를 즐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는 홀로 자존하시고 홀로 자족하시고 홀로 충만하여 흘러넘치시지만 또한 교제와 사귀, 사랑과 자기내어주심의 사랑모험을 즐기십니다. 하나님은 타자 포용적이고 타자초청적인 모험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회적, 사교적인 성품을 닮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귀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조직체 중에서 교회는 거룩한 조직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생겨난 조직체와는 전혀 다른 이유에 의하여 생겨나고 유지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먼저 "일부를 전체로부터 떼 내어 거룩한 공동체"(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점에서 거룩하고 복된 사귀입니까?

첫째, 요한 1 서 1 장에 의하면 교회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사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곧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 장은 생명의 말씀의 권능 경연장입니다(사 55:10-11).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의지, 소원을 따라 창조된 기관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무덤에 일으키는 말씀이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요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다리저는 자의 다리를 힘있게 직립보행하게 만드는 능력발출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적인 이권이나 취미나 기호에 따라 생긴 모임이 아닙니다. 향우회, 동창회, 주식회사와는 전혀 다른 근거 위에 교회는 서 있습니다. 교회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요 1:1-4; 창 1 장)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의 사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분과 접촉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 분은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돋우시는 생명의 말씀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혀 동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적 권능을 가진 말씀에 의하여 하나되어 이루는 사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됨의 본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세밀하게 경험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말씀을 통한 사귀이 바로 교회입니다(요 20:31; 히 4:12-13). 성삼위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사귀이 교회의 핵심표징이기에 교회는 기도와 순종의 비밀을 터득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 말씀을 입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복된 사귀에 초청합니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초청인이 되어 하나님의 성만찬축제식탁에, 죄사함의 감격식탁, 발씻어줌의 섬김식탁, 나눔과 베품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오병이어의 광야식탁에 다른 사람을 초청합니다. 교회는 이런 이유로 질적으로(사귀 심화), 양적으로(초청받은 사람들의 숫자)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모든 세상의 조직들과는 전혀 다른 열린 사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 창녀 등 사회의 가장 부랑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식탁에 와서 먹도록 초청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사귀의 기쁨은 새로운 교우들의 참여와 배가에 의하여 충만해지고 완전해 집니다. 사도 요한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한 말씀의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편지를 씁니다. 공세적이고 복된 사귀는 항상 이처럼 사랑의 능력, 기쁨의 능력으로 가득차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그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거룩하고 복된 사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사귀의 특징은 낮은 사람들에게 가슴이 따뜻한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사귀를 창조하는 도구가 됩니다.

셋째, 교회가 거룩하고 복된 사귀는 빛 가운데서의 사귀입니다. 빛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빛이요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게 인도하는 빛입니다. 교회의 핵심에는 죄고백, 죄의 용서경험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고백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엡 4:32; 5:8-14[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13 절]; 요한복음 3:19-21[19 절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살한 것이니라]; 8:12[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가운데 있는 교제의 진정한 징표는 죄고백에 있습니다(공적 고백과 사적 고백, 그리고 고해성사[김양재 목사의 우리들 교회는 공적 고백, 가톨릭은 고해성서, 개신교는 멘토나 목회자에게 은밀고백]). 이런 죄의 인정과 고백이 진정하게 이뤄지는 곳에 예수의 죄사하는 능력 넘치는 보혈이 역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영혼에게 진정으로 효력을 발합니다. 자백된 죄만이 더 이상 우리의 자아를 은밀하게 지배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은밀하게 우리의 옛 자아를 지배합니다(알콜중독, 음란동영상 관람, 게임중독, 영화중독, 일중독, 이성사랑 중독, 도박, 절도...). 이런 죄를 자백하면, 빛 가운데 노출시키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은밀한 죄는 자신만이 아는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죄부터 시작해서 시기, 질투, 험담, 폭력적 분출 등도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 장악력이 많이 약화됩니다(190 7 년 길선주 장로의 100 달러 절도죄 고백!! 대부흥운동의 도화선). 죄를 고백하는 순간 보혈권세가 크게 역사하사 사죄를 확신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개인의 성화와 사죄경험은 사회적 성화를 가져다줍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 보혈의 사죄권세 맛보는 교회가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권세를 강력하게 맛보는 빛의 사귀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대체로 교회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낯선 개인들로 시작됩니다. 거룩하고 복된 사귀이 이뤄지지 않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귀의 모험이 이뤄져야 하지만 성령의 추동없이

사권을 시도하기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고 낮가림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좋은 점입니다. 인간끼리의 낮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조직에는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개인, 소그룹간의 긴장이나 적의가 있기도 합니다. 기름분자는 아주 촘촘한 오래된 교우들의 관계, 혹은 옛날부터 친하던 세상관계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가열하면 기름분자 사이가 벌어져서 그 사이에 물분자가 들어갑니다. 성령의 가열이 있으면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씩 분자적, 세포적 결합을 이룹니다(엡 2:21-23, 15-23 절 유대인과 이방인, 특권층과 비특권층, 객선회 목사의 풀러논문, 소망교회의 급성장 원인이 동질적 집단을 통한 교회성장이론 옹호). 거룩하고 복된 교회는 인적 구성상 모든 형편, 계층, 계급의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영접하는 교회입니다. 특히 장애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면 "이방인"적 존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간구하고 앙망합니다.